

마닐라 紀行文

朴 亨 鍾

韓國保健開發研究院長·醫博·當協會理事

필리핀의 首都 마닐라를 향하여 金浦空港을 떠난 것은 지난 4月 19日로 기억된다.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는 4月이라 밤소매 와이셔츠에 夏服으로 갈아입은 나에게는 약간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 熱帶의 나라로 가기에 겨울 옷을 벗어버리고 말았다.

벌써 마닐라에는 몇 차례 다녀온 일이 있는데도 역시 外國旅行이라 그런지 약간의 긴장과 흥분감을 느끼게 된다.

서울서 마닐라까지는 우리 大韓航空이 隔日로 날고 있다. 數年前만 하더라도 直行機가 없었으며 따라서 香港이나 東京으로 돌아서 갈 수 있었는데 인제는 太極旗를 단 우리나라 飛行機가 직접 마닐라까지 날고 있으니 그 동안의 國力の 伸張을 體驗하며 은근한 大韓民國人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된다. 서울서 마닐라까지의 飛行時間은 3時間 30分, 서울서 汽車나 高速버스로 釜山 가기보다 더 빨리 마닐라에 도착하게 되니 정말 世上이 좁아졌다는 것을 實感하게 된다. 機內에는 韓國人의외에 外國人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 韓國말로 案内하는 스텐더스들의 알뜰한 모습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의자앞에 꽂혀있는 雜誌를 뒤적거리다 깜박 잠에 들고 말았다. 旅行準備를 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잠이 不足했던 모양이다. 울려나오는 마이크소리에 잠을 깨어 보니 벌써 目的地인 마닐라에 가까워왔다는 案内嬢의 말이다. 窓밖으로 내려다 보니 푸른 바다 여기 저기에 필리핀의 많은 섬들이 散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30分 後면 마닐라의 國際空港에 착륙한다는 얘기이다.

필리핀은 1921年 스페인사람인 마젤란이 이끄는 원정대가 남부 섬 세부에 상륙한 이후 점차로 스페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70年 初代總督인 레가스피가 마닐라를 점령함으로써 스페인의 占領地로 되었다. 그 후 美西戰爭의 결과인 1898년의 파리條約으로 스페인의 統治가 끝나면서 美國領으로 바뀌었고 世界第2次大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日本軍의 占領下에 있었으며 戰爭이 끝나면서 1946年 7月 美國의 지배에서 벗어나 共和國으로 독립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필리핀은 이 역사적 사실을 상징케 하는 흔적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다.

오랜 스페인統治의 결과로 建物을 포함하여 스페인 문화와 카톨릭의 전통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 東洋唯一의 카톨릭 敎國으로서 國民의 90% 이상이 카톨릭 信者이다.

世界 第2次大戰 當時 日本軍과 美軍과의 決戰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40대 이상의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당시의 쓰라린 기억이 남아 있다.

이 나라에 있어서의 美國의 영향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國民의 대부분이 英語를 자기나라 말과 같이 常用하고 있으며 지도층의 많은 사람들이 美國의 敎育을 받고 있다.

東西의 異質的인 文化가 混合되어 多樣한 生活習慣과 風習을 볼 수 있으며 最近에는 내 것을 찾아야겠다는 運動이 自己 나라말 쓰기와 같이 활발하게 展開되고 있다.

어느듯 마닐라 國際空港에 도착하여 飛行機의 트랩을 내리니 南洋의 熱帶地域의 뜨거운 햇볕과 熱氣가 어느새 나의 속옷을 땀으로 젖게 하

였다. 불과 몇시간전 金浦의 서늘한 공기에 비하면 역시 덥구나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空港에서 檢疫官, 法務官, 稅關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約 30分, 金浦에서의 경우에 비하면 훨씬 간소화되었음을 느낀다. 特히 稅關을 쉽게 통과하니 氣分이 좋다.

마중나온 WHO의 車를 타고 海邊의 베이뷰(Bay view)호텔에 旅裝을 풀고 10日間の 필립핀에서의 生活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닐라의 첫 印象으로 눈에 떠는 것이 世界各地에서 몰려든 觀光客들이다. 人種展覽會를 보듯 여러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다. 今年의 觀光客數를 300만명으로 보고 政府나 民間이 다같이 觀光事業에 熱을 올리고 있다. 그 證據로서 四方에 우뚝 우뚝 솟아있는 高層 現代式 호텔을 볼 수 있다. 昨年과 今年 사이에 10여개의 큰 호텔들이 새로 建立되었고 大規模의 國際會議를 誘致하기 위하여서 超現代式 會議場을 만들어 놓았다.

今年만 해도 亞細亞開發銀行의 會議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國際의 規模의 會議가 이 마닐라市에서 開催되었다.

數年前만 해도 어두워지면 호텔밖을 한 발자국도 위험해서 나가지 못하였었는데 요새는 것이 安全하다고 한다. 마르코스 大統領이 戒嚴令을 선포한 이후로 秩序가 잡히고 安定을 되찾은 것이다.

마닐라에는 어디에 가나 對照的인 光景을 본다. 가장 近代的인 都市로서의 威容을 자랑하는 “카카티” 쇼핑센터가 있는가 하면 椰子樹와 바나나 나무에 둘러싸인 傳統的이고 素朴한 南國의 아름다운 시골風景을 그 옆에 볼 수 있다. 요란한 現代音樂의 리듬에 맞추어서 춤추는 西洋文明에 대하여 在來의 獨特한 필립핀 衣裳을 입고 흥겹게 노래하는 民俗놀이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有名한 것이 소위 필립핀의 篋(竹)춤이다.

現代的 높은 빌딩 옆에는 數百年의 歷史를 자랑하는 스페인 建築物인 敎會를 본다. 過去와 現在가 서로 調和되어 새로운 文化를 創造해 가는 듯하다.

아직도 貧富의 差가 甚한 이 나라는 最近 수년간 經濟의으로도 급속도의 발전을 하고 있다.

天賦의 豊富한 自然資源을 가지고 自己나라 말 같이 英語를 自由롭게 驅使할 수 있는 利點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필립핀 經濟의 海外進出은 부쩍 늘어가고 있다. 거기에 自由陣營과 中共의 사이에서 實利를 쫓아 最大의 外交活動을 벌여가며 國際的 地位의 向上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거리에 나서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各種 熱帶性 과일은 우리의 興味와 口味를 돋구기에 충분하다. 바나나는 물론이고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기타 이름모를 과일들은 놀랄 정도로 그 값이 싸다.

값이 싼것은 비단 과일 뿐만은 아니다. 東南亞의 여러 나라를 다녀보아도 필립핀만큼 物價가 싼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많은 外國 觀光客을 誘致할 수 있는 秘訣의 하나일런지도 모른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호텔밖을 산책하려고 하면 5分內에 리잘公園에 들어서게 된다. 한때는 루베타公園이라고도 불리웠던 이 公園은 市內의 中心地에 자리잡고 있는 마닐라의 대표적인 公園으로서 市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男女老少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곳을 찾고 있으며 對話와 休息處로 삼고 있다.

中心에는 19세기 말엽에 스페인에 저항하여 필립핀의 독립을 제창하고 끝내는 1896年 反역죄로 몰려 35세의 젊은 나이에 총살형을 당한 국민적 영웅인 호세 리잘(Jose Rizal)의 記念碑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잘 손질된 아름답고 넓은 잔디밭과 樹木들이 있다. 市內의 복잡한 自動車의 洪水와 騒音에 비해 아름답고 조용하고 낭만이 깃드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필립핀 사람들은 樂天的이고 友好的인 國民들이다. 대부분의 國民은 混血되어 있고 스페인의 정열적인 기질을 타고 나서 노래와 춤을 즐기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열매의 모든 나라와 같이 나태하고 놀기로 즐긴다고 하였지만 그러한 모습은 인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내일의 발전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東南亞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희망에 찬 나라의 하나라고 생각되었다.